

OPEC 감시위원회 결과와 국제유가 전망

- 에너지경제연구원 -

'92년 1/4분기 OPEC(석유수출국기구) 감시위원회(2/12~15, 제네바)의 주요 결정 사항으로는 ①OPEC 생산상한은 2,298.2만 b/d로 설정하고 국가별 쿼타를 부여, ②새로운 생산상한을 즉각 시행(단, 이라크의 수출재개가 유엔에 의해 허용될 경우 임시 총회 개최하여 쿼타 재조정), ③4월 24일 감시위를 다시 소집하여 유가 및 생산상한을 재검토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번 OPEC 감시위는 현재 수급약세 상황의 심각성과 유가하락 방지에 대해 전 회원국이 공감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전 회원이 감산에 진지한 노력을 보였으나, '90년 7월 이래 국가별 쿼타제도로의 복귀로서 이번 감시위 결과가 차기 쿼타 논의의 "先例"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원국 각자가 자국의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합의에 난관을 겪었다.

특히 회의 과정에서 전체 쿼타 2,250만 b/d 이하를 주장하는 다수파(이란주도)와 전체 쿼타를 2,280만 b/d 이상으로 정하되, 자국 쿼타는 800만 b/d 이상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사우디아간의 대립 양상이 뚜렷하였었다. 회의 결과는 전체 쿼타는 잠정 합의(2,250만 b/d)보다 늘어난 대신 사우디아라비아 쿼타는 788.7만 b/d인 것으로 결정되었다(국가

별 쿼타배분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장대로 최고생산 능력 기준에 의한 비율감산의 방법이 채택됨). 따라서 이란과 사우디는 회의 결과에 대해 다 같이 불만을 표명하고 합의사항에 대한 유보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유가회복을 위해서는 생산상한이 높다는 불만에 불과하며 자국 쿼타는 준수할 것으로 확약하고 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는 800만 b/d 생산고수를 주장하고 있으나 배정쿼타(788.7만 b/d)와의 격차가 크지 않고 그 차이분(11.3만 b/d)은 이라크·쿠웨이트 미생산 쿼타분으로 보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의 800만 b/d 생산고수 배경은, ①결프전 직후 확대된 자국 쿼타(결프사태전 538.1만 b/d→803.4만 b/d)에 대한 기득권 유지와, ②이라크·쿠웨이트의 향후 쿼타 증대 요구를 사전에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시사되고 있다.

OPEC 생산상한은 2,300만 b/d로 설정되었으나 이라크·쿠웨이트 쿼타가 현재 산유량보다 30만 b/d 높게 설정되었기 때문에 실질적 생산상한은 2,270만 b/d로 추정된다. 쿠웨이트는 현 생산량보다 20만

b/d나 많은 81.2만 b/d가 키타로 설정되었고 이라크 키타는 수출재개시 다시 논의키로 하였다. 즉, 이라크·쿠웨이트 양국의 현 생산량은 100만 b/d로 배정 키타보다 오히려 30만 b/d 낮은 수준인데 이는 사우디등의 초과 생산으로 상쇄되리라고 간주된다. 이러한 생산상한 수준은 당초 예상되던 150만 b/d의 감산을 시사하는 것으로, 2/4분기 對 OPEC 수요(OPEC 사무국 전망 : 2,277만 b/d)와 유사한 수준이다.

OPEC 의장, 사무국장, OPEC 각국은 이번 회의 결과가 유가 회복에는 미흡하다는 견해이나, 「2/4분기 開始 시점인 4월 1일부터가 아닌 즉각적 감산」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2월중에는 선적 및 계약관계 등으로 일정이 이미 잡혀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감산은 3월 1일부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OPEC 원유 생산은 2월중 2,400만 b/d, 3월부터는 2,300만 b/d 내외가 예상된다. 현재의 對 OPEC 원유수요 22.6백만 b/d에 비해 이와 같은 생산규모는 2월중 1.5백만 b/d, 3월중 50만 b/d 정도의 공급과잉을 초래한다.

종합해 볼때 이번의 생산상한 및 키타 합의는 次期 감시위원회 개최까지 2개월간의 시장을 겨냥하여 사우디 主導의 소극적 유가 하락 방지책이 마련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 결과, 향후 국제유가는 4월

24일의 감시위원회가 개최될 때까지 현재의 약보합세(OPEC 평균 16\$/B 내외)가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 강력한 유가 회복책이 제시되지 않은데 따른 기대 무산으로 회의 직후 유가의 일시적 하락이 예상되긴 하나, 이번 회의 결과는 유가의 추가 하락방지 내지 현상유지에는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차기 회의(4월 24일 감시위원회 개최 예정)도 이라크 수출재개에 따른 추가감산문제와 국가별 키타 재조정 등 어려운 난관이 많고, 유가 절정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OPEC 키타 내역

(단위 : 천 b/d)

	신규키타(A)	점유율(%)	1월산유량(B)	감산폭(B-A)
사우디	7,887	34.3	8,550	663
이라크	3,184	13.9	3,500	316
UAE	505	2.2	400	-105
쿠웨이트	2,244	9.8	2,400	156
카타르	812	3.5	550	-262
나이지리아	377	1.6	300	-77
리비아	1,751	7.6	1,900	149
알제리	1,395	6.1	1,600	205
베네수엘라	760	3.3	800	40
에콰도르	2,147	9.3	2,300	153
인도네시아	273	1.2	300	27
인도네시아	1,374	6.0	1,400	26
합	22,982	100	24,300	1,318

- (주) 1. '90년 7월 총회 합의 생산상한 : 2,249.1만 b/d(사우디 : 538.1만 b/d)
 2. '91년 9월 감시위 이후 생산상한 : 2,365만 b/d(국별 키타 없음)

용어해설

● 나프타(Naphtha)

重質휘발유 또는 半製品(粗製) 휘발유를 뜻하며, 끓는점 범위는 30~200°C이다. 석유화학공업의 기초원료.

상압증류탑에서 추출되는 휘발유溜分 가운데, 끓는점 범위 100°C까지를 輕質 휘발유(Light Naphtha 또는 LSR)라고 하며, 100°C 이상을 重質휘발유(Heavy Naphtha 또는 HSR)라 한다. 또 이 두가지를 포함하는 것을 통칭하여 나프타(Fullrange Naphtha 또는 WSR)라고 한다.

● 무연휘발유

납성분이 함유되지 않은 휘발유로서 국내에서 1987년 7월부터 공급되었다. 어느 나라에서나 종래의 휘발유에는 옥탄價 성능을 높이기 위해 극소량의 납성분을 첨가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제조기술의 발달과 환경보전을 위해, 납성분 대신에 MTBE등 화학물질을 첨가하여 필요한 만큼의 옥탄價를 갖는 휘발유로 제조한다.

이 무연휘발유를 사용하는 차량에는 배출가스 정화장치가 부착되어야 한다.